민족화해

Vol. 92
2018 May + June
05
06

판문점 선언,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다

ISSN 2288-2782

Vol. 92 2018 May + June

Contents

02 포토 에세이 —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시작하다

06 권두 인터뷰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을 포기하는 대신, 잘 사는 북한이 되려는 것입니다

12 특집 — **• 판문점 선언,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다**
① 한반도 분단 레짐 변화의 신호탄
동아시아 틀 바꾸는 역사로 이어져야 | **진희관**
② 다양한 긍정적 변수 작용한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 | **이 근**
③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게 할 다섯 장면 | **장용훈**

24 시선 대 시선 — 남북정상회담 성과 토대로 비핵화 과정의 불확실성 대비해야 | **박형중·전봉근**

30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 **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장
평화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통일현장 지키는 언론인으로
기억되고파 | **염규현**

34 연재 — **마음으로 만나는 북한 ⑥**
분단넘기에서 미디어의 오늘과 내일 | **권금상**

38 이슈 앤 포커스 — **미중 패권경쟁과 남북관계**
자국 이익 관점에서 비핵화 계산하는 미중, 한국의 전략적 행동 필요 | **조남훈**

42 특파원 리포트 —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의 대응**
사라지는 북풍, 아베 최후의 선택은? | **서영아**

46 평화 교육, 통일 교육 — 대학통일교육,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 **조은희**

50 뉴 노멀 한반도 평화 — 탈북 출신 신진 통일학 연구자가 바라본 한국의 통일 연구 | **엄현숙**

54 줌인 북한 —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이야기**
① 북한학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 | **김태우**
② 통일은 멀리 있지 않다 | **김희수**

58 통일 웹툰 — Hello, 북한 - 제2편 평양냉면에서 백두산들쭉술까지 -

60 문화 모니터 — **북한의 '대중문화' 어디까지 왔나?**
파격적 무용과 의상 선보인 북한 공연단, 남북관계 개선 흐름 따라 사실상 남한 가요 해금 조치도 | **전영선**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④ 돼지와 아낙네 | **조천현**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⑯ 평화의 순간을 기억하다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 **이상현**

68 민족화해 네트워크 — • 2018 여성통일 공감 Talk
• 2018 민화협 제1차 정책간담회

70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72 민화협 사서함

Cover Story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봄을 불러왔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오직 평화만 가득하도록 만들자고 다짐했다. 남북을 가르던 군사분계선을 서로 오가며 양 정상은 분단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느끼고 있다. 민족의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민족화해 2018년 05+06월호(격월간, 통권 92호)
등록번호 종로, 마00069
발행일 2018년 5월 16일 **발행인** 김홍걸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김석진, 김성경, 박인휘, 조남훈, 장용훈, 전영선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디엠빌딩 15층 **전화** 02-761-1213
디자인 및 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되돌릴 수 없는

Photo Essay

평화의 길을 시작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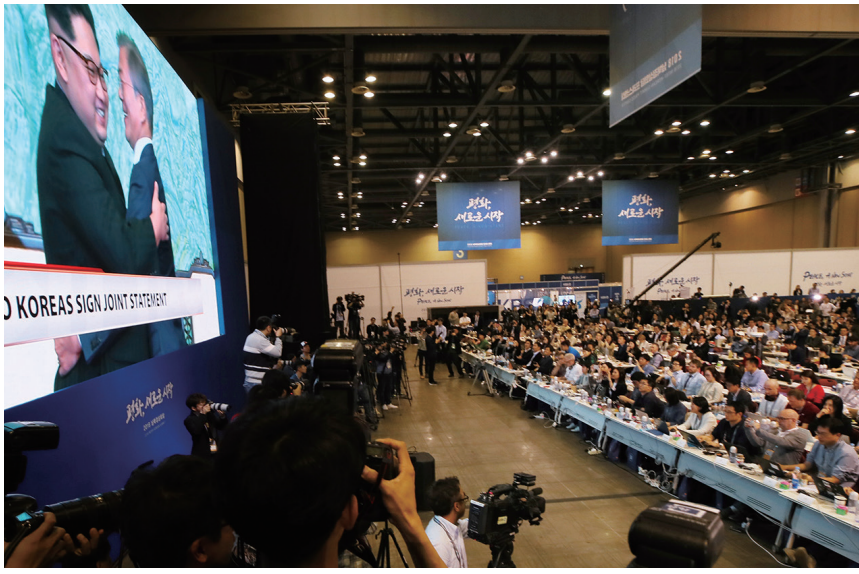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남북 정상 간 12시간의 만남으로
평화와 기적의 장으로 되살아났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제 남북은 그토록 원했던 평화라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은 지금부터다.

6월 12일 개최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만들어내길
간절히 바라본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합의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뤄지길 바라본다.

**우리에게 평화의 봄은
이제 시작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경기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합의문 서명 후 포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인근 '소떼 길'에서 기념식수 후 표지석 제막을 하고 있다. '소떼 길'은 1998년 6월 16일 고 정주영 그룹 명예회장이 민간인 신분 최초로 판문점을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간 길이다. ⓒ청와대

[Interview]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을 포기하는 대신, 잘 사는 북한이 되려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다. 한반도의 봄이 북미관계에도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은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논의로 더욱 뜨거울 것 같다. 봄의 훈풍과 여름의 열기가 가을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흐름이 한반도 대결 구조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앞으로 한반도가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그는 북한이 경제부국을 목표로 국가전략을 새롭게 수립한 만큼, 앞으로도 전향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가을에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번영의 열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5월 4일 세종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대담 • **공용철** KBS PD
정리 • **이현희** 민화협 정책홍보팀 국장 사진 • **김성헌** 객원작가

Q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위기설과 미국의 코피전략 등 한반도에 긴장이 팽팽하게 유지되었는데,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상황이 급선회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배경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A 구조적 요인과 리더십 요인이 상호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구조적 요인을 보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관계의 악화와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안보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평화국면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작년 11월 말 화성 15호를 발사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 제재로 풀 것인지, 대화로 풀 것인지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북한도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빈곤하지만 핵을 갖는 안보체제로 갈지, 핵을 포기하고 완전한 안전보장을 받아내면서 새로운 경제발전의 경제부국으로 갈지의 선택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남·북·미가 환경과 구조면에서 기로에 서 있던 것이 작년 말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평화의지와 중재의 리더십이 작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에 기초한 결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을 포기하고 경제부국으로 가겠다는 전략적 결단 등 구조와 리더십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봅니다.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전쟁종식 선언입니다

Q 남북정상의 만남은 단 하루의 만남이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우선,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합의하고 북미대화의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두 정상의 전쟁 종식선언입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같이 하는 법제적 차원의 정전선언도 있지만, 두 정상이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면서 육·해·공에서 일체의 적대적 대결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에게 더 이상 대결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확성기 철거 등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천한 것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Q 예전에는 격과 의전, 형식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A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상대방에 대해 기선제압을 먼저하고 간을 보는 등 형식에 굉장히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실용주의자로 목표달성을 중요하게 보는 듯합니다. 형식적인 겉치레를 중요시 않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과감히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국가와 비슷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성격이 남북 회담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과감한 합의들을 끌어냈다고 봅니다.

Q 북한은 2012년 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2013년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선언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의 노선이 바뀐 것으로 봐야 할까요?

A 핵무력 병진노선은 이미 바뀌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올인으로 노선을 바꾸었고 이러한 전략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봅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100주년 열병식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유토피아가 아닌가 합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 베트남보다 더 고도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잠재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새로운 국가모델을 구성한 것입니다. 과거는 핵 보유로 안전을 보장받았다면, 이제는 핵을 포기함으로써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남북관계 정상화, 전통적 북중관계 회복을 통해 새로운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부국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권력공고화 수단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수단으로 바뀐 북한 핵

Q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전쟁의 기억을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대북문제가 국내정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도 분단 상황을 내부정치에 활용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그것은 북한의 권력공고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일체제가 공고하면 분단을 이용할 필요가 그만큼 적어지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공고화는 이미 2014년~15년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군의 예를 들면, 선친인 김정일 위원장은 군에 별을 많이 달아주고 계급도 굉장히 많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는 거품이 있던 계급을 모두 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의 계급장을 떼고 거품을 없앤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공고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말 폭탄 공방이 있었는데 북한주민 입장에서 보면 젊은 지도자가 세계최강 미국 대통령과 싸워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긴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공고화에 화룡점정을 찍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보검이라고 했던 핵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안전보장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가는 결국 잘사는 북한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핵·ICBM과 관련한 이익집단인 군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군에 대한 장악이 완벽하지 못하면 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권력이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공고화를 위해 활용해 온 핵무기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정권 초기의 핵무기 개발은 권력공고화와 연관이 있지만, 그 이후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핵개발을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권력공고화에 이용할 필요가 없기에 핵무기를 자기가 추구하는 국가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어차피 핵무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의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Q 북한이 수령제 중심의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등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체제이완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체제보위와 외부협력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으로 보십니까?

A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핵심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생각하는 개방에 대한 관점은 김정일 시대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고도성장 하면,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북한도 이것을 두려워했겠지만, 중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듯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펴고,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고도성장을 해 왔습니다. 공산당 체제에서 고도성장 하는 가능성을 중국을 통해 본 것입니다.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제 3세계의 군부 쿠데타로 만들어진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은 독재국가지만 우리의 평가와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의해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흔들리지 않고 고도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에, 개방을 통해 새로운 국가모델로 가려는 것이라 봅니다.

Q 북핵 포기를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체제 보장을 넘어 경제부국이 목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줄 수 있는 반대급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양쪽의 주고받기와 로드맵을 어떻게 보십니까?

A 북한이 우리 예상보다 더 전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남북관계를 다른 전문가들 보다 전향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일괄타결을 합의하고, 회의감 불식을 위한 선행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물로 줄 것이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줄 선물을 남북정상회담 전에 미리 내놨습니다. 매우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다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북한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얼마만큼 빠르게 비핵화와 연계하여 동시적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이 지점을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면 일정 부분의 공감대는 있지 않을까 예

상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경우도 합의사항들이 사전에 상당부분 조율이 되어 있었는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맞춤형으로 무언가를 내놓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미국도 북한의 진정성 수준이 높으면 지금보다 과감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북한의 비핵화가 가져올 동북아 안보질서와 평화협력 논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A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그때는 한반도 통일외교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비핵화가 실현되면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동북아에도 다양한 안보협력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지향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에 맞는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이어져야 하고, 비핵지대화가 되려면 주한 미군도 한반도에서 핵자산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환경이 좋아지고, 향후 미중갈등의 위험성 속에서 미중갈등이 한반도발로 격화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비핵화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해협력의 일반화는 방법론을 둘러싼 우리내부의 갈등 줄이는 계기 될 것

Q 우리 사회 내부로 시선을 돌리면,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조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제재 해제를 비롯하여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 내부의 혼란은 없을까요?

A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문제가 정치적 분열과 정쟁에 이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화해협력 상황이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대담을 나누고 있는 공용철 PD(왼쪽)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평화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민의 80%이상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대북정책과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정쟁화하는 것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진보라고 분류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이고 나아가 한반도의 공동번영과 통일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은 나와 반대에 있는 다른 누군가도 같을 것입니다. 방법론상에서 다를 뿐입니다. 화해와 협력이 일반화되면 방법론을 두고 적대적으로 논쟁하고 대결하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고 적대적 상황이 해소되면 우리사회가 혼돈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정책과 안보문제가 정치의 인질화되는 시대가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대북문제, 안보문제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Q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 남북 합의 이행과 실천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남북의 이행의지가 넘쳐난다는 점에서 낙관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국민적 동의와 초당적 동의기반을 구축하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과거의 합의가 뒤로 퇴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와 관계없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북정책을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초당적 동의기반 확보와 합의 이행 실천을 위해 중요한 것이 국회비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남북협력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류협력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A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재개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제재 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할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과 남북공동번영과 관련한 협력은 2018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판문점 선언이 만들어 낸 4·27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미완의 회담이라고 봅니다. 남북공동번영과 관련한 4항과 5항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것이 가을 정상회담에서 채워져야 합니다.

교류협력은 일반 사회문화협력과 경제협력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사회문화 협력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제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경우도 북한의 식량사정 등이 여전히 풍족하지는 않지만,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던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제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경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이 남북이 함께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4·27정상회담은 성공적이지만 미완의 회담, 가을 정상회담에서 공동번영에 대한 합의로 완성되어야

Q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협력 등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북한에 대한 인프라 건설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북한 경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한국경제의 기회의 창을 여는 일입니다. 서울에서 신의주를 거쳐 단둥으로 이어지는 고속철과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북한 경제에 굉장한 도움을 주지만, 우리 경제에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교해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가진 경제적 측면의 잠재적 우위요소가 상당이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시장화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고, 경제개발구를 만들어서 외부 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한에는 우수성이 인정되는 산업인력이 많고, 경공업 기술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수만 명의 IT 고급인력과 지하자원도 많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북방정책이 만나는 물류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경제자원과 우리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합하는 것이 향후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상호 이익 나는 것을 찾으면 되고 거기에 인프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Q 평생 남북관계와 북한을 연구하셨는데요, 그동안 경험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이 분단 이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십니까?

A 절호의 유일하게 온 기회라고 봅니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대결구조인데, 남북대결과 북미대결의 커다란 두 축으로 되어 있고, 두 구조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냉전 해체는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남북대결 해소 노력이 북미대결로 인해 악영향을 주면서 도돌이표처럼 돌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연쇄 개최는 남북대결 구조와 북미대결 구조의 동시 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기회가 지금 왔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다

1

한반도 분단 레짐 변화의 신호탄
동아시아 틀 바꾸는 역사로 이어져야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제주도가 모친의 고향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함경도가 부모의 고향인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었다. 허리 잘린 한반도의 한복판에 있는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마주하여 '도보다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휴전선 위에 1953년생 소나무 한 그루도 식수했다.

그들의 만남은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살얼음판과도 같았던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봄눈 녹이듯 풀어 주었다. 지난 해 11월 말 화성-15형 ICBM이 시험 발사될 때 반년도 안 되어 오늘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당일 발표한 공화국 성명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말해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점치게 하였던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수립 70주년과 한국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해를 언급하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평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일대 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지속적인 관계개선 의지와 일관된 대북정책을 표명한 일들이 주요한 배경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북한 역시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 관계개선 의지의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지역 방문도 칭찬할 필요가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던 부친의 약속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일부라도 행동에 옮겼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당초 김여정 특사를 통해 평양으로 초청의사를 밝혔지만 누가 봐도 이번 차례는 북측이 남한을 방문하는 게 도리였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방문이 한 결 가벼워진 느낌이다. 아마도 그 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친의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도 적극 추천할 일이라 생각된다. 혹자는 남측과 관련된 가계를 밝히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을 볼 때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두 정상 간의 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 한반도 문제는 세계의 최대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야 말로 판을 해치는 돌발변수의 출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의 내용인 '판문점 선언'은 예상만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검증가능과 불가역적이라는 용어가 빠져서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영어의 'complete'의 완수하다는 의미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perfect'와 같은 것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영속적인(permanent) PVID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남북이 동의하고 합의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핵 문제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이어지는 과제들이 남아 있고 이는 북미대화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대화를 통해 진전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좀 더 제어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

예견됐지만 연내에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할 것이라는 발표는 대단히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무려 65년간의 휴전인 지구 역사상 최장기 휴전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선언이었다. 종전이란 평화협정 체결의 첫 걸음을 의미하며 정전 당사자 간 관계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어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북미 수교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정상국가(normal state)화로, 경제봉쇄가 풀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세제경제 질서에 편입된다는 뜻이며, 따라서 세계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재정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북한의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 자율성'이 감소하게 되어 예측을 벗어나는 도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제 정전체제인 '1953년 레짐'은 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놀라운 성과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 대통령은 가을에 평양에 가기로 약속했다. 정상 간에 자주 만나기로 한 것은 총리급, 장관급, 실국장급 등 하위급 회담의 더욱 빈번한 개최를 의미하며 이러한 것이 성사될 경우 남북 정치통합의 초기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이자 통일 과정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된다. 가을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곧 실무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정상회담을 위해 많은 남북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남북스포츠 교류가 성과를 내고 있다.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남북단일팀이 메달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고, 6월과 7월에 평양과 대전에서 열리는 평양오픈, 코리아오픈 대회로 스포츠교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8월에 있을 아시안게임에도 함께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어서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팀이 초청된 상태이며 남한의 여러 도시에서 문화, 스포츠 분야의 북한 측에 대한 초청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평화번영을 위한 부분은 기존 남북 합의로 대신했다. 2007년 10·4선언에서 했던 많은 약속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독자제재가 엄혹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남북경협을 언급하는 것은 실효성보다 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약속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비용 소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지만 충분히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서둘러 단박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공감대를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주지하듯이 북미정상회담이 곧 개최될 예정이다. 비핵화의 열쇠인 북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북한을 '통 크게' 움직이게 하고 있다. 남북, 북미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당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선언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한 것도 그러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보내는 협력과 지지는 동북아 변화에 중대한 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국빈 대우하며 정상회담을 이끈 것 역시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걸림돌들이 없지 않다. 미국의 보수진영에서 생화학무기와 인권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에 대해 트럼프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지도 과제가 될 것이다. 크지는 않지만 일본의 납치자문제도 제한요인이 될 것이며 아베정권의 위기, 그리고 러시아의 대선 후유증도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란의 핵사찰 문제와 시리아 문제도 여전히 도화선으로 남아 있으며 중동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남북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은 한반도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문정부의 일관된 의지는 명확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폐기 과정을 남측과 미국 측에게 초청하여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3년 전에 바뀐 표준시에 대해서도 남측에 양보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전히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의지가 강력하고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의 보수진영도 관계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세계의 최대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야 말로 판을 해치는 돌발변수의 출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북한 당사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분단 레짐' 변화의 신호탄

그래야만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갈 수 있다. 한반도 '분단 레짐'의 변화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바로 2018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이제 가을이 되면 '2018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회담을 전후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정상회담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된다. 그리고 임기 중 몇 차례 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된다면 남북 관계와 동북아는 획기적인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은 동북아의 틀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진희관은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고,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특별연구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판문점 선언,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다

2

다양한 긍정적 변수 작용한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이른바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선언문 속에 비핵화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서막을 연 셈이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조건

그렇다면 과연 북미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또 수락한 것일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까지 군사적 충돌 얘기가 나왔던 두 나라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역사적' 정상회담을 갖기고 합의한 것일까? 원래 정상회담은 실무진이 대부분의 문제를 앞에서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상끼리 사인을 하는 회담인데, 이번에는 왜 거꾸로 가는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일까? 북미정상회담은 두 명의 예측불허 지도자의 '비정상'회담인가, 아니면 확실한 논리적 해결점이 보이는 '정상' 회담인가? 북미정상회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질문이 제기되는 매우 이례적인 정상회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과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추정, 분석해 보는 글이다.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북미정상회담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북한핵의 폐기(CVID)를 북한이 약속하고, 그리로 가는 길에 대한 합의, 즉 로드맵에 대한 합의와 매우 신속한 시간표를 공동 발표문에 포함하게 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물건과 물건을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어서 1회에 모든 것을 종결하는 협상이 아니다. 양국은 각기 국내의 '과정'을 교환하게 된다. 북한은 자신의 핵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여 미국에 신고하고, 국제적인 검증팀이 북에 들어가서 사찰 및 해체 과정 검증을 하며, 또한 북한 정부는 종전, 평화협정, 수교 등과 관련한 외교적 국제법적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관련 조직 및 인사에 대한 재편이 있을 것이고, 북한군에 대한 통제와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즉 매우 복잡한 국내적 과정을 미국과 교환하는 것인데,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5월 10일 보도했다. ⓒ연합

미국은 북한만큼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역시 국내정치 및 국내법, 국제법과 관련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 줄 것을 주어야 한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핵태세보고서(NPR) 등에서 북한을 잠재적 핵타격 국가로 규정한 것을 바꾸어야 하고,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제재와 관련된 법 등을 바꾸는 다양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협정을 맺고, 수교가 될 경우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도 있다. 이러한 과정의 교환 속에서 상호간의 불신을 얼마나 빨리 불식시킬 수 있느냐도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다.

상대방의 조치를 믿을 수 없다는 신호가 어디선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시간이 예상 외로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1회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로 성공을 선언한 후, 모든 것이 종결되는 성공을 선언하는 마지막 정상회담까지 모든 교환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 및 당사국의 숙제가 될 것이다.

성공 가능성 점친 북미 정상, 서로의 필요 의해 과감한 결단 내려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정말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이고, 또 그 결단을 아래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위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북한의 정부조직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실행과정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확인 과정이 정확히 언제부터 북미 간에 시작되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지금의 북미 간 정상회담 준비 속도로 보면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이전부터 시작된 과정으로 보이며, 미국에서는 주로 CIA와 관련 북한팀이 이를 진행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유는 얼마 전 국무장관이 된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이 국장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CIA의 팀이 돌아갔으리라는 합리적인 추정 때문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워싱턴 DC의 북한 혹은 한국 전문가가 이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필자가 아는 한 찾을 수 없고, 국무부도 거의 공전하다시피 하여, 아마도 CIA의 요원들이나 특별팀이 가동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들은 북한이 붕괴직전의 실패국가인지, 김정은 위원장의 세계관과 권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왜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지 등을 알아보았을 터이고, 비핵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국장과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폼페이오 국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만 가지고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아무리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사업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정치적으로 언론과 민주당의 공격을 거의 매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도박하듯이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의 병진정책은 그 근원을 1962년 김일성 주석의 '국방 경제 병진 노선'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은 이후 국방을 위해서 재래식 전력의 강화를 추진했고, 경제에서는 군수 및 중화학 공업 육성 등을 진행해 왔지만,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해지자 국방은 재래식 전력보다 돈이 덜 드는 핵으로 교체하고, 재원을 주로 경제에 돌리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이라는 새로운 구호의 병진노선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13년에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병

진노선은 핵무력으로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였는데, 병진의 한 축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북한의 핵억지력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실험으로 핵폭발력을 보여주고, 미사일 실험으로 핵탄두를 원하는 거리까지 투발하는 운반수단 능력을 보여주고, 이동식 발사대 및 핵탄두 대량생산 능력 등을 보여줌으로써 2차 보복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은 수차례의 실험을 한 후 2017년 11월 29일 이 능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는 병진의 다른 한 축인 경제건설에 전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중국, 러시아, 한국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니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도 경제건설이 안 되는, 즉 병진이 안 되는 딜레마에 북한이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핵무력을 가진 채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핵과 안전보장을 교환하고, 국제제재를 풀어 경제건설을 할 것인가 사이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전자는 병진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미국과 협상만 잘 되면 1962년 국방 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경제건설과 국방의 병진을 위해 후자의 선택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남한의 정부도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정부가 아니고, ICBM 직전의 능력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도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러시아 역시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없으니 지금은 북미 간의 협상만 가능하다면 다시 병진으로 나아갈 최적기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동아시아 냉전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 커

북미정상회담은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과 국내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뭔가 홈런을 한방 날려야 하는 실용주의적 트럼프 대통령간의 조합이 형성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 현란한 효과가 담긴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아마도 미국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과 인도, 북한의 명시적인 CVID 약속과 시간표 제시, 그리고 북한의 가능한 선행조치 실행, 트럼프 대통령이 빛나는 정상회담 의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가 온다는 역사적 선언 등이 북미정상회담 당일과 전후에서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다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탄핵가능성 역시 급전직하하여 남은 임기 중에 비핵화를 완성시킬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번 비핵화의 과정은 국가 정상이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서론을 먼저 써 놓는 정상회담의 연속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맞추어 지도록 실무진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장애물이 생기면 정상이 다시 개입하는 그러한 비핵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은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 지도자 간의 조합, 지도자의 의지, 그리고 정상회담의 성격 등이 모두 비핵화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매우 역사적인 행운의 시점이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근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군 위스콘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판문점 선언,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다

3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게 할 다섯 장면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이미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은 새롭게 다가온다. 9년 가까이 이어져온 남북관계의 공백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성으로 서로 상대를 대하는 남북한 정상의 모습에서 새로운 미래를 떠올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진정성이 느껴진 이번 정상회담의 몇 장면을 정리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북

"우와~~!"

4월 27일 오전 9시반.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는 환성이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 위에서 손은 맞잡자 쏟아진 박수소리가 바뀐 순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8분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와 소회의실(T3)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환한 미소를 보이며 악수를 한 뒤 MDL을 사이에 두고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윽고 문 대통령이 손짓으로 안내하며 김 위원장을 이끌자 김 위원장은 MDL을 넘어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을 배경으로 연달아 사진을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그대로 남쪽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 측에서 '깜짝 제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며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며 북쪽으로 잠시 넘어갔다.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남북한의 지도자가 분계선을 오가며 한반도에 현존하는 분단의 실체를 허무는 모습이었다.

새들과 함께한 도보다리 정담

예능의 최고봉은 다큐멘터리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냥 타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한 방송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오두막에 살게 하고 하루를 어찌 지내는지 관찰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다. 에이, 설마 그럴까.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다큐멘터리식 관찰예능이 얼마나 큰 희열을 줄 수 있는지 증명했다. 문재인 대통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서고 있다. ©연합

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7일 오후 4시 36분께부터 우리 측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기 색인 하늘색 페인트를 칠하고 T자형으로 구조를 변경해 새로 단장한 도보다리를 나란히 걸어 다리 끝에 있는 101번째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함께 살펴봤다. 이후 표식물 근처 벤치에서 원형 탁자를 가운데 두고 1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로 마주 앉아 오후 4시 42분부터 5시 12분까지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당시 체코,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가 임무 수행을 위해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습지 위에 건설한 다리다. 김 위원장은 북측 사진기자가 근접 촬영을 시도하자 자리를 비켜달라며 손짓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양 정상은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30분 넘게 이어갔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때문일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정담을 나누는 것 같았던 그 순간, 도보다리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하는 새소리만 들려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배석자 없이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판문점 선언 서명과 포옹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도보다리에서 나와 다시 평화의집으로 향했다. 이어 각 실무진으로부터 문구를 조정한 합의문 내용을 보고받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 40분 평화의집에서 북한산 그림 앞에 준비된 책상에 앉아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그랬던 것처럼 두 정상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높이 들어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회담을 자축했다. 악수를 이어가던 두 정상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껴안아 감동을 더 했다. 포옹으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합의의 감격과 이행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북측의 수행원들과, 김 위원장은 남측의 수행원들과 악수를 이어가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선언의 이행에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상회담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약속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중략)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광이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 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 계단에 마련된 연단에 섰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직후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육성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고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모두 극복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극도의 폐쇄성으로 북측 지도자의 실시간 육성 공개도 드물지만 마치 합의 후 브리핑을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은 그동안 볼 수 없던 장면이다.

특히 육성 발표가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정치시스템 상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곧 법이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육성발표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퍼스트레이디, 평양냉면 그리고 환영만찬

"미래에는 번영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김정숙 여사)".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리설주 여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17분 리 여사는 군사분계선(MDL)을 차로 넘어왔다. 한반도기와 같은 색인 하늘색 코트 차림의 김 여사가 평화의집 현관에서 화사한 분홍색 치마 정장 차림의 리 여사를 미소로 맞았다. 김 여사는 리 여사의 허리에 손을 가볍게 얹어 친근감을 표시하며 자연스럽게 평화의집 안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리 여사는 먼저 "문 대통령과 함께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회담도 잘 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회담 성공을 축하했다. 김 여사는 "다리를 건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평화롭던지"라며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가슴이 막 뛰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역사적 회담에 대한 벅찬 감격을 상기된 표정으로 전했다. 남북 정상 간 만찬은 '판문점 선언'을 도출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자축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만찬의 화두는 평양냉면이었다. 환영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메뉴인 평양냉면을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이 특별히 준비해주신 평양냉면이 오늘 저녁의 의미를 더 크게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냉면은 옥류관에서 사용하는 제면기를 설치한 다음 옥류관 수석요리사를 판문점으로 불러 직접 만든 뒤 평화의집으로 배달했다. 오전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을, 멀리서 온,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이 수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북한 오영재 시인의 시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상봉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북과 남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만찬을 주최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만찬이 끝나고 다시 헤어짐의 순간. 10분간 진행된 환송행사 직후 김 위원장 부부는 북측으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기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와 작별 인사를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악수를 했고, 김 여사와 리 여사는 포옹했다. 김 위원장은 북쪽으로 돌아갈 차에 오르며 문 대통령에게 뜨거운 시선을 보냈고, 문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더 뜨거운 눈빛을 전달했다.

어쩌면 그날 이후 여러 곡절을 넘어가야할 두 정상의 이신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장용훈은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수석데스크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내정 기사로 한국기자대상 등을 수상했다.

남북정상회담 성과 토대로 비핵화 과정의 불확실성 대비해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히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철수,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북미관계 정상화에 이르는 과정과 북미정상회담의 실패까지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족화해》 92호에서는 두 전문가를 초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 보았다. 대담은 5월 9일 진행되었다.

사진 • **김성헌** 객원작가 정리 • **황지은**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사회자 (조남훈)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다. 또 이산가족상봉, 서해평화수역지정, 개성남북공동연락소 설치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간략히 평가해 달라.**

전봉근 이번 3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길게는 9~10년 짧게는 1~2년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사실 미래의 성과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그야말로 남북관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평화, 핵, 군사문제가 핵심이 된 조금은 독특한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과 하나의 '패키지'로 열린다는 차원에서 북미회담까지 끝난 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박형중 우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크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긴장 완화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판문점 선언은 긴장 완화 과정의 시작이다. 흔히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반은 끝났지만 그만큼 어려운 나머지 반이 남아있다고 본다. 판문점 선언은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을 나열한 남북한 지도자간 정치적 양해 각서라 본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조건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또는 한국과 북한이 노력해 함께 실현해나갈 수 있다. 그러자면 양측은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문제는 판문점 선언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는 남북 협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도 많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실현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남북 간 이해의 일치가 앞으로도 반드시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북한도 물론이겠지만 한국은 정

사회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담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담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책결정 과정에서 앞으로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자 **정상회담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발언들이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다. 측근들 역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한의 행동이나 발언들을 판단할 때 과거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박형중 평창올림픽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긴장 완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서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세상에 널리 과시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창올림픽부터 정상회담까지의 전체 과정은 매우 잘 치러졌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감동을 주는 행사였다. 판문점이라는 무대에서 양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긴장완화와 협력증진에 관해 융통성을 보였다. 양자 간 존재하는 갈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협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강조한 선에서 또한 상대를 최대한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행동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본다.

전봉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언동과 정책적인 측면 두 가지 모습이 충격을 준 것 같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던 김 위원장의 이미지가 매우 잔혹한 이미지였다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이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간 남북 간 협상, 대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밀당'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공식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평창올림픽 참가와 특사 교환, 그리고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추진했다. 너무 빠른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진정성 여부에도 많은 의문을 던져줬고 만약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과연 그 끝은 어딘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의 결정적 변수될 순 없어,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행동 살펴보며 관계 발전 시작해야

사회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비핵화라고 생각된다. 비핵화에 대해 남북 간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말이나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어려움이나 대북제재를 모면하려는 임시적 방편인지 궁금하다.**

전봉근 북한에 상당한 전략적 선회가 있었다고 본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핵무장이 국가의 미래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즉 핵무장했을 때의 이익구조가 비핵화의 이익구조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핵무장을 할수록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강압이 더욱 더 높아졌으며, 핵무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과 달리 경제는 제재 때문에 더욱더 나빠진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구조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방향 선회가 자기의 이익구조, 즉 북한이라는 나라의 국익 그리고 김정은 개인의 정권과 체제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덧붙이자면 국내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정성이 있는지 많이 말하는데, 국제정치에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다. 진정성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 진정성 여부보다는 정말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물어야 한다. 지금의 경우라면 북한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사회자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이끌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더 융통성 있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만 치중하다보면 비핵화 추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박형중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 생존의 문제다. 남북 간 긴장완화가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북한이 이야기하듯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이다. 내부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이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든다.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그에 수반하는 여러 비용들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사회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비핵화가 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계속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핵화가 가시화되면 남북경협을 가능한 것부터라도 시작하자는 주장이 있다. 남북경협을 핵 폐기가 완전히 될 때까지 늦춰야 하는가, 혹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경협을 시작해야 하는가.**

박형중 남북관계 증진은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연계되어 있다. 핵문제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 합의라는 것은 비핵화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 만약 한국이 솔선해서 합의를 수정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협을 하고 싶다면 사실상 국제 제재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에 관한 비용을 한국이 치를 준비가 돼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전봉근 판문점선언이 남북관계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비핵화 문제는 정말 한 줄 뿐이라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초점이 흐려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다. 핵무장의 동기를 따져 본다면 남한과의 세력 균형의 붕괴가 30~40% 그리고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30%, 자기의 정권과 리더십의 강화가 30%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정전 또는 분단체제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면 최소한 남북관계 요인으로 인한 북한의 핵무장 동기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그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박형중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비핵화라고 이해하고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 또는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이야기했을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대한 핵우산 포기 또는 미군 철수까지 논의될 수 있다.

다음은 한미의 온도차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가장 낙관적인 것은 한국정부이고 가장 비관적인 것은 미국의 핵전문가들이다.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당장 북한에 완전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한다. 사실 미국 협상가들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장기적 과정이다. 그런데 그 장기간의 상당기간 동안 북한은 사실상의 핵 국가가 된다.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지만 현실적으로 그 완성에 도달하기 까지 상당 기간 북한은 사실상의 핵 국가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안정 위한 6자회담 여전히 유효

사회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해진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핵화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전봉근 선언문 1항과 2항 1조, 2조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 서해평화수역, 공동연락사무소, 군사회담 개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 또 경협은 국제제재 해제와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핵문제 진전과 제재 해제에 따른 남북경협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도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였고 포기하려는 이유도 경제와 안보를 다른 방식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핵을 포기하려는 때 경제 부분을 받쳐줘야 한다. 또 제재와 무관하게 우리가 북한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문제, 보건 의료 문제 등은 좀 더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박형중 '선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가 아니라 '선언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 답변을 하고 싶다. 첫째 우리 내부 합의를 다지는 문제다. 이 문제가 결국 판문점 선언의 영구적인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북한의 협조를 담보하는 문제다. 여러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북한 내부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추진하는 내용, 방법에 대해 주변국과의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한반도 현상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 없이 너무 빨리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사회자 **이번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항국적 평화를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라는 내용이 있다. 정전에서 종전으로, 다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달라.**

전봉근 종전 선언과 관련해 중국이 포함된 회담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07년이다. 그런데 현재는 2007년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2010년 즈음 시작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이제 동북아에서 중국의 어떠한 역할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3자 또는 3자 보다는 4자의 평화 포럼, 또는 거기서 나오는 평화선언, 평화협정 등이 더 보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사실 중국은 2007년만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미국과 안보 경쟁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에서 굉장히 심각한 안보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이 개입한다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특정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 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 러시아의 역할이 거의 없다. 남북 간의 기본적인 평화협정과 관련,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해 이 지역의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과거 6자회담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은 아니겠지만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 가동이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6자회담 틀을 이용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싶다.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 주한미군 철수 등 성급한 논의 경계해야

사회자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철수 자체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파생되는 남남갈등이 비핵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형중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지난한 과정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상당기간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최소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동안은 한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마치 북미정상회담에 의해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일 것이고 그때까지는 주한미군 문제, 핵우산 문제는 탁자에 아예 올려놓지 말아야 된다. 한국 내부의 문제를 본다면 진보 진영의 성급함이 존재하고, 우파 진영의 과장된 두려움 또는 자신감 결여가 존재한다. 양쪽은 한반도의 현상을 인정하고 이 현상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봉근 한국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전문가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대북정책을 놓고 갈등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각자 추구하는 세 가지의 가치에 있다. 안보와 평화, 통일이다. 이는 상호관계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장들이 안보 지상론, 평화 지상론 또는 통일 지상론으로 치우쳐버려 문제다. 대북정책에서 달성해야 큰 목표는 하나인데 이러한 세부 목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사회자 **새로운 남북관계,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정부 대 정부의 기관이지만 민간도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과 정부차원의 교류,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박형중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왕래라고 표현했다. 저도 민간교류는 궁극적으로 자유왕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능한 한 정치적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당국이 계획을 세울 때 민간의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전봉근 교류 협력의 확대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다. 정치적 통제의 배경에는 핵 문제 때문에 민간 교류에 제약이 있었다는 현실도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북한도 수용 가능하고 우리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가 허용하는 사업을 우선 개발해 그 사업을 중심으로 접촉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이 좋다. 북한과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낸다면 거기에 따른 민간영역간의 협력은 자동적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불확실성 존재하는 향후 정세, 철저한 상황판단과 인식으로 미래 준비해야

사회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속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또는 앞으로 북미회담으로 가는 자세 등에 대해 제언해 달라.**

박형중 정상회담으로 시작을 잘 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북미정상회담이 이미 성공한 것처럼 생각한다. 성공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실패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준비를 잘 하고 한편으로는 냉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봉근 북핵문제를 연구하면서 나름의 세 가지 원칙을 찾아 이야기해왔다.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 비용은 언제나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그래서 항상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 핵 협상 악순환 사이클'이 있다. 지금까지 6번 정도의 핵합의가 만들어지고 깨졌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큰 성공이라고 자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과거 핵합의에서 교훈을 찾아 이번에는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어떠한 남북관계비용, 비핵화 비용이라도 전쟁 비용보다는 싸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비용도 달게 치를 준비를 하자는 뜻이다. 아울러 핵이 없거나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됐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됐을 때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래 안보 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과감하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평화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통일현장 지키는 언론인으로 기억되고파

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장

1986년 MBC에 입사했다. 수습 시절 북한의 수공(!)에 맞서기 위한 평화의 댐 모금 생방송 무대 뒤에서 상담 전화를 받았다. 첫 방송 데뷔였다. 1989년 MBC 통일전망대를 맡았다.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8년까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생방송을 진행했다. 30년 가까이 통일전망대를 지켜온 것은 물론이다. 그 사이 북한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적잖은 내공이 쌓였지만, 여전히 어렵다. 아니, 풋내기 아나운서 시절보다 자타 공인 통일방송 전문기자가 된 지금이 더 어렵다. 역사의 수많은 현장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체화된 사명감, 소명의식 때문일까. 이제 '통일방송추진단장'이라는 직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MBC 김현경 기자를 만났다. 인터뷰는 5월 4일 상암 MBC 통일방송추진단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정리 • **염규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국장 사진 • **김도형** 객원작가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TF팀을 세 개나 진행했어요. 남북태권도 시범공연, 평양공연 〈봄이 온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까지. 그러면서 통일전망대도 계속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남북관계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역사적 만남이었잖아요. 이제 나이도 들다보니(웃음), 부담이 더 커지고 '과연 건강이 버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도 김현경 단장의 눈빛은 오히려 더 반짝인다.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 MBC〈통일전망대〉는 김 단장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국내 최장수, 최고의 통일전문 프로그램이다. 〈통일전망대〉가 발전해 온 만큼 김 단장도 국내 최고의 북한전문기자가 되었고, 남북관계의 매 순간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온 그 시간만큼 성숙해졌다.

"젊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역사적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한 이후, 그리고 통일전망대를 진행해온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엔 바쁜 업무에 쫓겨 그저 지나쳤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두려워지고 겁이 난다고 할까, 그동안 아는 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웃음), 경험도 쌓였지만 오히려 중압감이 더 커진다는 느낌이에요. 한반도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는 역사적 순간, 그 현장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거죠.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감회 역시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천시를 만났다'고 표현한다. 과거에도 남북 합의들이 있었고,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다.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이다. 때문에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많은 사람들,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천시'를 만났다.

김 단장은 지금의 기회가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살려 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특히 언론인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행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또 지난해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 북한의 모습에 놀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한 순간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일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은 과연 변했을까? 거의 10년 만에 평양을 다녀온, 그리고 이번 태권도시범공연, 평양예술공연 등을 위해 북측 인사들과 만났던 김 단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SF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먹은 평양냉면에 깜짝 놀랐어요. 맛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먹었던 서울 김치도 지금 서울 김치와 맛이 다르죠. 이번에 평양엘 가보니 북한 여성들의 말투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달라졌잖아요. 1990년대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된 이후 북한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고난의 행군이란 어려움도 겪었고요. 우리는 스스로 지금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가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봐야 해요. 우리 사고는 그대로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 북한이 한 번에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1인 권위주의체제나 북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쉽게 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북한이 딛고 있는 지각 자체가 변했는데, 어떻게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철저히 우리 중심적으로, 때론 그 중심을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이리저리 옮기면서 '신화와 허구' 속에 가둬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해요. 이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이뤄져 온 북한의 변화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난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시기도 아쉬웠고, 국제정세도 받쳐주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고, 동력도 상실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국내외 정세 모두 '천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상황이 좋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임기가 많이 남았고, 김정은은 젊은 지도자다. 북한과의 협상은 무용하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도,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로 바뀌었다. 물론 지금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김 단장은 북미정상회담도 조심스레 낙관한다. 진정한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때'라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미 모두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양측 모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김 단장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는 역사와 신이 평화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임계점, 즉 위기를 위기라고 비로소 느낀 순간, 해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물방울 대신 물줄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업'과 관련해 물었다. 그동안 방송 언론은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가 성행해도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힘들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뉴스를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때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제 남북관계가 근

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언론의 역할을 무엇이어야 할까. 우문에 현답이 돌아왔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이젠 뉴스를 소비하는 행태도 많이 바뀌었어요. 포털이 이른 바 '제목 장사'를 하는 식으로 뉴스가 소비되는 시대죠. 기자의 설명을 듣고 있을 사람도 없고, 애써서 설명하려 하는 기자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짜뉴스는 아귀가 딱딱 맞아요. 듣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현실의 뉴스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은 부조리하잖아요(웃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큰 흐름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와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줄기 대신 물방울에 주목해선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의 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북언론교류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다. 어느 언론사나 마찬가지겠지만 평양특파원, 평양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꿈을 꾼다. 물론 북한 체제가 언론 친화적인 것은 분명 아니기에 과연 북한에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은 든다. 그럼에도 "NBC도 들어가는데 MBC는 왜 안 돼요?"라며 웃는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뉴스를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다. 그것이 김 단장의 꿈이다. 우리가 언론교류를 먼저 두려워할 필요 역시 없다.

북한만 바라보면 북한이 보이지 않는다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기대와 희망 속에 활동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재개'라고 표현할 만큼 지난 10년 남북민간교류는 막혀 있었다. 김 단장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말한다. 당장은 남북 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결국 당국이 전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때까지 민간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과거 미흡했던 부분을 교훈삼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김현경 단장은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다.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고, 더 높아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북한만 바라보면 북한이 안 보인다"고 말한다. 스스로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늘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난 컴퓨터가 되고 만다.

늘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위대하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도 〈통일전망대〉를 지킬, 그리고 남북관계의 역사적 현장을 지킬 그에게, 마지막으로 '통일 전문언론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부탁했다. 역시나 우문에 현답이다. 그의 건강을 기원한다.

"저는 언론인도 물론 좋지만,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로서 평화와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든 자기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양을 쌓고 언론인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만나는 북한
6

분단넘기에서 미디어의 오늘과 내일

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전 세계의 미디어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난 남과 북 두 정상이 정겹게 손을 잡고 남북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가 열리는 역사적 사건을 8천만 겨레와 전 세상에 알렸다. 70년간 지속된 분단 한반도에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는 2018년이다. 평창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시작으로 조심스레 켜진 평화의 불씨는 남측에서는 북한공연으로, 북측에서는 남한공연이라는 교류로 이어지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려 한반도에 새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임을 확인하면서도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남북한 통합의 날을 위해서 사회문화정치 모든 영역은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

전 세계의 언론과 미디어는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전이에 주목하고 있다. 그 어느 영역보다 미디어는 남북한을 잇고 동질성을 이해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통일준비시기를 맞고 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달리 7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주민들에게 형성된 분단 인식은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을 따르게 하는 소통 형성체라는 점에서 민족통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고 남북통합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미디어가 만드는 분단의 현재성

로이 그링커(Roy Grinker)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가 규정한대로만 믿을 뿐, 현재 확연히 달라진 서로의 존재들은 전혀 이해하려하지 않는다"고 하며 남한이 그리는 '북한'이나 북조선이 그리는 '남조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현실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남북한 미디어가 분단사회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통합을 위하기보다는 남북이 각각 자국의 주민들을 결속시키는데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북한 미디어에서 그리는 남한사회와 주민들은 범죄가 만연하여 단 하루도 일상을 누리기 어려운 혼탁한 사회로 강조된다. 남한 미디어에서 그리는 북한사회는 여전히 20여 년 전 고난의 행군 시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핵미사일을 앞장세운 무장국가이면서 북한주민들은 판단이 결여된 수동적인 집단으로 강조되어있다. 남북한 미디어가 그리는 분단의 현재성은 남북한 주민들이 누리는 일상이 무시되어 있는 그대로의 남한과 북한을 그리지 못하여 갈등이 강조되어온 것이다. 특히 남한의 미디어는 탈북인을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대상으로 다루었다.

2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유입된 탈북인들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로 분단 체제에서 승리의 표상이 되어왔다. 1997년 이후 20년 간 정부는 탈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도왔으나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탈북인들의 남한 이주사가 20년이 되어가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한국 내 통합이 어려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뛰어넘기 힘든 것은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미디어에서 탈북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방송되고 있다. 종편의 탈북인 프로그램들은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기획이라고 하지만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을 재현하는 방식은 통일에 대한 담론 형성이나 통일 이후 사회를 상상하게 하는 긍정성 도출에는 거리감을 갖게 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2년 전 진행된 본 연구자의 탈북인 프로그램 시청에 대한 남북주민의 소감 인터뷰에는 이런 말이 담겼다. "TV에서 보면 북한 사람들이 매일 굶는다는데 통일되면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남한주민청년)", "지금같이 북한이 가난한 나라로만 그려져서야 과연 남한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겠어요?(북한주민청년)".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사회의 고통스러운 식량난 시기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되었으나 현재도 북한사회에서 진행되는 것같이 그리는 미디어의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북한 인식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북한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편견을 없애고자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에 대한 편견을 생산하는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난해 일어난 임지현의 재입북 사건은 한국의 모

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임씨는 7월 16일,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등장하고 8월 20일과 28일 두 차례 더 등장하여 한국사회를 탈북민이 하루도 살수 없는 냉혹한 곳으로 비판했다. 그녀는 남한에서 종편채널의 탈북인 프로그램 고정 출연진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남한에서 방송 출연 시 자신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남한 미디어 제작관계자들의 요구라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임지현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임씨가 남한 미디어에 등장하여 처참한 북한을 비판하는 서사를 구성해오다 재입북 후 북한 미디어를 통해 한국사회를 고발하는 자기부정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임씨 사건은 개인의 단순한 귀향 문제가 아니라 국내언론에서는 탈북인을 둘러싼 부정적 논의로, 북한 미디어는 한국사회를 비난하는 주요한 주제로 부각하고 있어 분단사회의 갈등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분단 넘기와 미디어 윤리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언론 및 미디어 제작자들은 사회통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 분단 상황에 일어난 사건 뿐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협상, 교류 등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사회통합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양쪽 주민들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어 동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같이 남북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베트남은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의 갈등이나 보복을 금지시키고 사회주의 교육으로 대치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했다. 베트남의 미디어 역시 사회통합을 위해 남북주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방식의 국가적 담론과 실천을 보였다. 동족상쟁의 상흔을 가졌지만 이들의 통합정책은 전방위적으로 주민들의 마음에 호소하며 평화적 상생을 이끌어낸 결과이기도 했다.

새봄을 맞은 한국사회는 지난 분단체제를 뛰어넘고 통합을 위한 모색과 대안을 찾아야 할 과제 역시 안게 되었다. 한국사회 미디어가 보여 온 북한재현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주민의 통합을 위해 남북한의 미디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질문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한 미디어가 구성해온 현재성은 적대관계와 타자성에서 되돌이표만 그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로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 북한사람과 북한사회문화를 정권과 분리시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차이와 극복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탈북인들은 미래에서 온 사람 혹은 통일의 가교라고 표상화 되었으나 현실에서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었고, 통합의 역할보다는 한국인 되기만이 강요되었다. 따라서 탈북인들을 일반인들과 분리시키기 보다는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동에 주안을 두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탈북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인 문제는 향후 남북주민들이 살아가야할 방법과 문제해결을 제시하기 때문에 미디어만의 과제는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수용성과 실천영역의 문제이다. 탈북인들의 남한 적응경험을 통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통합의 대안들이 논의되지 않고는 북한사회와 북한사람을 제대로 인식하는 담론형성이나 평화적 실천 수반이 사실 어렵다.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새 국면에서 미디어는 적대적 틀 재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까지 미디어가 구성해온 현재성이 분단체제였다면 이후는 남북한 주민의 평화와 공존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 남남, 북북,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공간과 이념을 넘어 미디어로 소통하는 시대를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 한반도의 평화로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 북한사람과 북한사회문화를 정권과 분리시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차이와 극복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권금상은 충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받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다문화정책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인과 미디어, 북한여성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다양한 가족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백악관은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통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

Issue & Focus 미중 패권경쟁과 남북관계

자국 이익 관점에서 비핵화 계산하는 미중, 한국의 전략적 행동 필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골치 아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 핵폐기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본 게임인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만만치 않은 검증 및 이행 과정을 순조롭게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동북아 국가들의 시각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 핵폐기라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핵폐기의 대가로 주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폐기의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과 직접적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자국의 국가이익이 북한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중국의 속내는 상당히 다르다. 향후 대립과 협력을 되풀이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단순한 핵폐기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를 미래 동북아 세력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주한미군 조정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제한 등이 가져올 파급효과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미중의 동상이몽

서로를 경쟁상대로 간주하는 미국과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및 군사 분야에서도 상대 국가의 국력 또는 세력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의 결과로 미국에 대한 북한 위협이 제거될 경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결과로 주한미군의 지위 및 규모가 조정되거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제한될 경우, 이로부터 파생하는 효과들이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대립은 2000년대 들어 더욱 격화되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군사적 팽창을 추구함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국제정치 주도권을 빼앗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경제는 2000년 이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간 등, 두 개의 전쟁에 몰두하던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온 힘을 쏟을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국제정치적 자유 속에서 중국은 국방예산 증대를 기반으로 미사일 전력을 증강시키고 항공모함 등의 해양 전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대륙세력이 아닌 해양세력으로의 도약을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두 개의 전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 오바마 정부는 대중국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을 수립한 후 중국 견제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미중 간 군사적 대립과 대결이 본격화된 것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제2도련선 확보'를 통해, 그리고 미국은 '자유항행작전' 등을 통해 해양에서 자국 국가이익 확보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견제와 남중국해에서 구단선(Nine-Dash Line)을 주장하며 영토적 야심을 숨기지 않았던 중국의 호전적 태도가 이러한 대립 격화에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양국 간 대립은 트럼프 대통령 선출된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트럼프는 해군력 증강과 핵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및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등, 중국 정부의 탈규범적 경제정책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경제전쟁을 시작하려 한다. 최근, 미국의 안보목적 긴급관세부과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응관세부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양국 간 무역 전쟁 촉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양국은 자국의 세력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세력 확대를 최대한 막으려 한다. 이 와중에 양국은 최근 급격히 협상국면으로 진입한 북한 핵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양국 간의 세력 균형을 변화시킬 핵심 요소로 작용할까봐 우려한다. 이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한반도 변화가 가져올 자국 손익 계산 중인 미중

먼저 미국의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자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결되면 미국은 주요 위협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으며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서 친중 국가인 북한을 자국의 우호국가로 전환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미 간 경제 및 국제정치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대중 포위망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미국에게 이익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의 보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자산 전개 제한 등을 양보해야 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중견제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 탄도탄 위협의 제거는 미국의 국방예산, 특히 대공방어체계(BMD)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탄 능력 확대가 미국 BMD 예산의 지속 확보를 보장하겠지만 북한 핵 위협 저하는 미국 국방예산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이 경우 미국은 대중견제 측면에서 한반도에

서의 정전체제 지속이 평화체제 전환보다 유리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반대로 중국은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자산 전개 제한 등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비핵화의 결과로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주한 미군이 여전히 주둔하는 조건하에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강력한 우방인 북한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이 향후 남북통일로 연결된다면 중국은 미국과 육상에서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중장기 국가이익 확보를 염두에 두고 북한 비핵화의 과정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 핵폐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국이 남북정상회담 이전 긴급하게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또한 그 직후에 왕이 국무위원을 평양으로 급파한 이유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북 체제 보장의 국제화 추진하고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의 호기로 삼아야

현재 한반도 상황은 한국에 대해 전략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조정문제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에 의해 언급되었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이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대안이 도출되도록 힘써야 한다.

중국은 평화협정이 남·북·미 3자 간에만 논의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는 자국의 국가이익 확보를 위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비핵화 국면의 당사자 또는 중재자로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상호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타당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

>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 정착 분위기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의 관건인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할수록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의 불가역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국들의 단계적 참여 및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비핵화 국면을 중장기 동북아 안보질서를 구축의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 정착 분위기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미중패권경쟁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동북아의 안정 및 평화기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남훈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의 대응

사라지는 북풍, 아베 최후의 선택은?

서영아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Japan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월 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

"언제라도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판문점 선언 이틀 뒤인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같은 메시지에 일본은 반색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까지 어우러져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 "일본만 모기장 밖에 있다"는 지적에 귀가 따갑던 상황. 소외감의 수렁에 동아줄이 내려온 느낌이랄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나자 기자회견을 자청, 상기된 표정으로 이 내용을 밝혔다. 당초 예정된 서훈 국정원장과의 면담 약속 시각을 넘기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방송들은 스팟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보도했다. 다음날 아침 신문들도 이 소식을 1면에 올렸다. 아베 총리건 언론이건 "문 대통령이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줬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고마움마저 표하는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의 전화와 서훈 국정원장의 방일 등 한국의 빠른 설명조치에 안도한 일본 정부는 5월 초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을 한국에 보내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저팬 패싱' 혹은 '모기장 밖', 부인할 수 없는 소외감

4월 27일 판문점에서 벌어진 남북 정상의 만남은 일본에서도 큰 관심사였다. NHK는 전날부터 메인뉴스 앵커가 서울로 가서 방송을 진행했다. 다른 방송

들도 대부분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 도착하고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우리 프레스 센터에 등록된 외국인 기자 중 40%가 일본 언론이었다니 그 취재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일본 언론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거론됐느냐"였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담에서 납치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납치 외에 일본이 낄 명분이 있는 대목이 없었다. 말하자면 국민 앞에 '일본의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꺼리'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게도 북한에 납치 문제를 제기해 달라거나 북한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해왔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가 오느냐 마느냐로 '튕기던' 불과 한 두 달 전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지난해 내내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던 일본 정부의 행태도 지금 돌아보면 머쓱하지 않을까 싶다.

일본,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자" 우세

그렇다고 일본이 북한과의 접촉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 여론은 6월에 열린다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왔던 노선에서 갑작스런 선회가 쉽지 않은 데다 대북 협상에서 실망을 거듭해온 자국의 경험도 작동했다. "관계국들이 북한에 언제까지 속을지 지켜보자"는 심산도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의제가 된다면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일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국교정상화도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사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당연히 가야 하는 수순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 배상하지 않고 적대관계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북한이다. 일종의 못 다한 숙제인 셈이다. 아베 총리 본인도 이 숙제를 잘 알고 있다. 그는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마주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북일 '평양선언'과 '스톡홀름 합의' 복귀를 촉구했고 여기 대해 김 위원장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먼저"란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북일 간의 교섭의 역사가 이 대화 속에 응축돼 있다.

2002년 당시 대북 지원 위해 100억 달러 준비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전격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등의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을 발표했지만 납치문제에 걸려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북한에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조로 무상자금협력, 저리 차관, 민간차원의 융자 등을 합해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준비했던 걸로 알려졌다.

북일 수교 논의는 이후로도 간혹 이어졌다. 2014년 제2차 아베 정권과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를 약속한 '스톡홀름 합의' 때에도 양국은 급격히 접근하는 걸로 보였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과 언제라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누차 밝혔고 아베 총리의 연내 방북설이 떠돌기도 했다.

이번에 다시 북일 교섭이 이뤄진다면 이 연장선이 된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북한 내부에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일본과 주로 협의한다'는 전략이 검토되

고 있다"며 "(북한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면 100억~200억 달러의 경제지원이 기대된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북미정상회담 정국은 불과 두 달 전까지도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다. 2002년 고이즈미 방북 당시는 북한 측과 1년 이상의 물밑접촉과 준비과정을 거쳤다. 또 지금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하는 일본 정권이 아무리 훗날의 일이라 해도 북한에 경제 지원 약속을 한다는 것은 거부감이 큰일이기도 하다.

아베 인기의 원천 납치문제, 이제는 걸림돌

북일정상회담 및 국교정상화, 이에 따른 경제지원 수순은 2002년 납치문제로 인해 멈춘 이래 동결된 상황이다. 다시 시작하려면 여기부터 할 수밖에 없다. 고민은 아베 총리가 늘상 외쳐온 '납치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데 있다.

아베 총리로서는 명분상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앉기 어렵다. 일본 국민 사이에 납치문제에 대해 맹목적일 정도로 감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를 조장하고 이용하며 인기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일본 국민이 원하는 '해결'은 어렵다는 게 일본 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은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 방북 당시 생존 납치피해자 5명을 일본에 되돌려 보냈다. 그 뒤 일본이 인정한 나머지 납치피해자 12명중 "8명은 사망,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며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12명중 단 한명이라도 납치피해자가 나타나주는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

사석에서 만나는 일본 언론인들 가운데는 북한의 '사망' 주장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특히 납치피해자의 상징처럼 돼 있는 요코타 메구미 씨의 경우가 그렇다. 요코타 씨의 부모는 이미 북한에 남은 사위와 딸, 증손자까지 면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 어디서도 이런 말은 기사로 쓰지 못한다. 가족의 비통함을 생각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론 때문에도 그렇다. 여기에 2014년 스톡홀름 합의 뒤 북한이 납치피해자 재조사 결과 특정실종자 1명과 전후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아내 등 2명을 찾았다고 알려왔으나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일도 있었다.

북풍 없는 아베 정권, 유지의 동력은?

5월 6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아베 총리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자 평양길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지금처럼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진부한 곡조를 외우며 놀아대다가는 억년 가도 우리의 신성한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현란한 어휘가 춤을 추지만 북한의 지금까지 특성을 고려해보면 북일 회담을 의식해 미리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말폭탄을 퍼붓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정권은 대북 강경 일변도로 북풍과 납치를 이용해 통치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정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돌아온다면 그로서는 큰 정치적 동력을 잃는 셈이 된다. 아베 정권이 제대로 방향전환을 해낼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칫 북한의 변신이 일본 정치의 미래를 바꿀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서영아는 1989년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2006~2009년에 이어 2016년 1월부터 두 번째 도쿄 특파원 겸 지국장으로 근무 중이다.

대학통일교육,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조은희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교수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시민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평양에 건립된 '숭실학당'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숭실학당'은 1906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 인가받아 실용교육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폐교를 선택, 1954년에 서울에 숭실대학교로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는 이산대학으로 통일은 숭실대학교의 정신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 또는 회의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숭실대학교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2014년부터 교양필수 〈한반도평화와 통일〉 수업을 개설하였다. 즉 전공자 및 인문·사회계열 학생 중심의 제한적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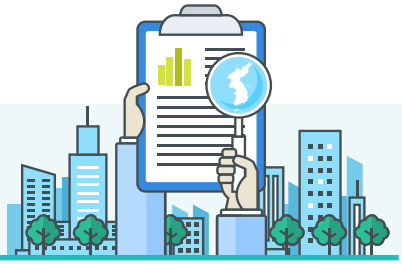
이후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2015년부터 〈한반도평화와 통일〉 수업은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현장체험은 물론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팀별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수업의 반은 이론수업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2박 3일의 연수 프로그램인 '숭실평화통일스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숭실평화통일스쿨'은 현장체험과 함께 팀별로 진행되는 토론중심의 활동들로 구성되어있다. 숭실대학교는 새로운 형식의 〈한반도평화와 통일〉 수업을 통해 학생들 안에서 스스로 건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통일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숭실대학교의 통일교육은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제한적이나마 스스로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또래와의 토론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식전달보다 통일공감대 형성에 주력

〈한반도평화와 통일〉 수업 중 '숭실평화통일스쿨'을 시작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매학기 통일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장 체험과 팀별 토론 프로그램 실시이후 통일인식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후 '북한이해', '대학생을 위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항목의 상승률이 눈에 띈다. 특히 '숭실평화통일스쿨 프로그램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항목의 상승결과는 숭실대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인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장(場) 마련'을 통한 통일공감대 형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학이다. 1938년 자진 폐교하기까지 평양에 캠퍼스가 있었으나, 분단 이후 서울에 캠퍼스를 두게 되었다. 현재 캠퍼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에 있다. ©연합



숭실평화통일스쿨 참여자 사전·사후 인식조사 결과(2017)

		2017_1 평균	2017_2 평균	2017년 전체 평균
나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	사전	3.05	2.89	2.97
	사후	3.64	3.76	3.70
	증감	19.18%	30.24%	24.56%
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	3.21	2.96	3.08
	사후	3.75	3.81	3.78
	증감	16.93%	28.91%	22.68%
나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전	2.95	2.94	2.95
	사후	3.73	3.85	3.79
	증감	26.29%	30.91%	28.59%
나는 통일이후의 사회변화를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전	3.66	3.67	3.66
	사후	4.17	4.20	4.18
	증감	14.00%	14.51%	14.26%
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	3.44	3.38	3.41
	사후	3.96	4.03	3.99
	증감	15.19%	19.05%	17.10%
나는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	3.03	2.94	2.99
	사후	3.77	3.90	3.83
	증감	24.09%	32.34%	28.15%
나는 숭실평화통일스쿨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전	2.79	2.52	2.66
	사후	3.58	3.52	3.55
	증감	28.00%	39.91%	33.65%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숭실대학교 통일교육은 2018년이 되면서 학내 모든 학생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통일교육을 받게 되었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숭실대학교의 학생이라면 적어도 미래 통일시대 창의적 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 하게하는 통일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2014년 숭실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5년간의 통일교육을 해 오면서 성과 또한 있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한반도평화와 통일〉 교과목이 매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통일관련 논의 수준이 좀 더 구체적이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는 수업을 통해 통일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5년간의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결과 숭실대학교 전체 학생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정보 및 의견교환 등 자유로운 통일논의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통일교육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과 북한 교육에 대한 심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전공교육의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숭실대학교는 2016년부터 7개의 전공이 함께하는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하여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흡수, 통일 및 북한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하였다.

통일시대 이끌어갈 숭실 통일 리더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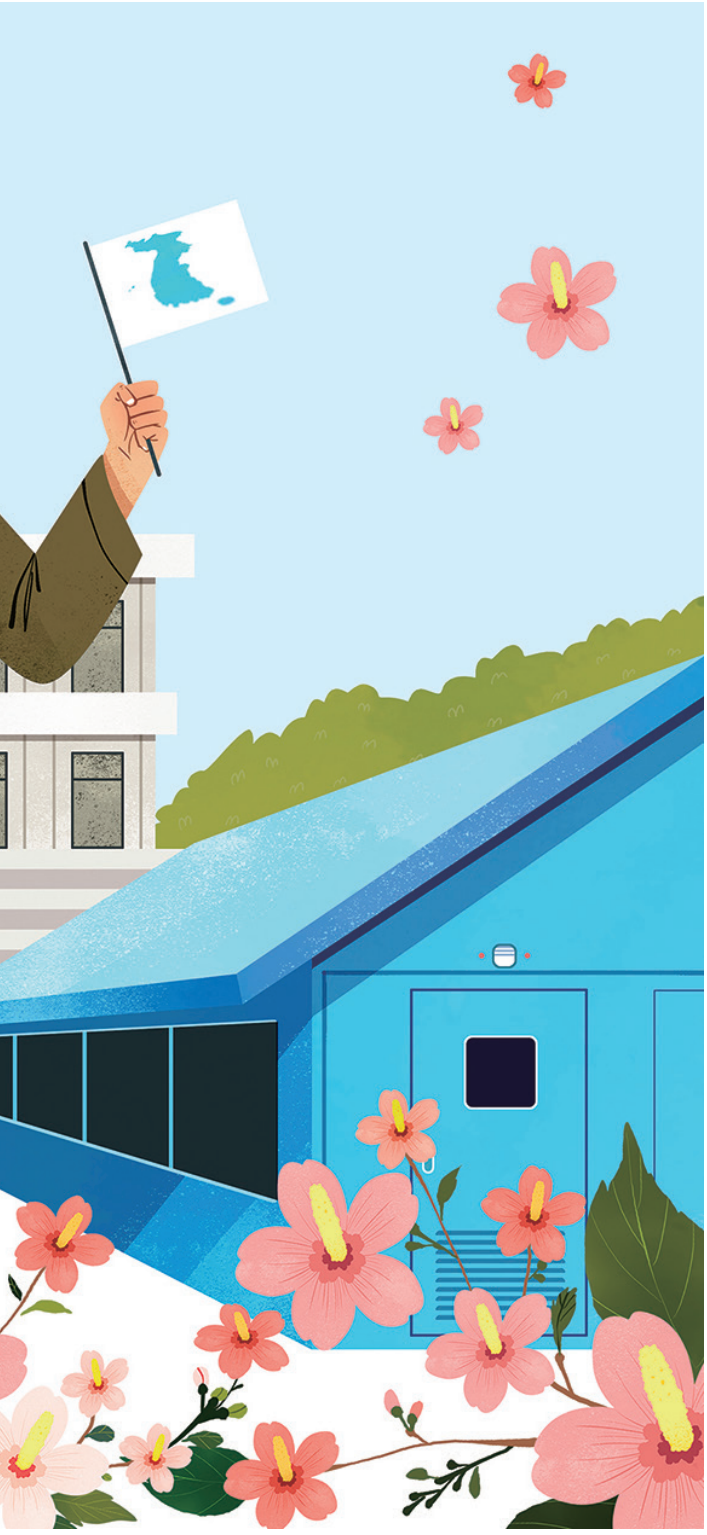
향후 숭실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평화와 통일〉 교과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기본적인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통한 전공교육, 이후에는 대학원 교육체계까지 갖추어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고자 한다.

숭실대학교의 통일교육은 평양숭실로부터 시작한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통일의 문제는 어느 한 세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래 통일세대 주역인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대학생 및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우려와 무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통일논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기 보다 스스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래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미래와 함께 통일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생 대상의 통일교육은 어떠한 '내용(contents)'를 많이 전달해야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통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또래와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즉,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라 생각된다.

조은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숭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화협 정책위원도 맡고 있다.

헌병



탈북 출신 신진 통일학 연구자가 바라본 한국의 통일 연구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내가 보는 한국의 북한 연구는 주로 북한교육, 북한주민, 통일교육, 남북한 통합교육, 남북한 사회통합 등이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온 여러 질문이 있다. 가령,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의 편견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겠는가? 북한, 또는 '북한적' 현상은 특수한 것인가? 북한만을 위한 이론 개발이 필요 한가 등.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북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 직접 가볼 수 없고,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연구자마다 달라진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북한 연구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는 나만의 고민도 아니고 북한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가 느끼는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내가 왜 북한을 연구해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통일을 위해? 아니면 평화를 위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위해? 아니면 탈북민 학자라는 사명감으로 출발한 것인가? 정말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학이라는 학문은 미개척 분야에 대한 지적 탐구와 호기심도 있겠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비롯된 일종의 의무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외연확장 불구, 여전히 시간에 흐름에 잠들어 있는 북한 연구

북한 연구의 외연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이슈는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북한 사회, 도시, 주민, 일상, 남북한 주민의 마음 통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흥미 있는 연구 주제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문헌연구, 비교연구 등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심층 면접, 참여관찰, 사례연구, 통계분석 등 양질의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탈북민 연구자의 시각으로 볼 때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오픈되지 않은 채 시간의 흐름에 잠들어 있다.

북한 연구는 연구자 혼자만의 의지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연구를 위한 환경적 배려가 중요한 이유이다. 연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연구의 질적 완성도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 출연 연구비의 지원과 기관 지원, 연구재단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부 출연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해당 주제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원한다. 그 방향성에 맞는 글이 아니라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 분명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주제들은 다가설 자리가 없다. 그런가 하면 단기 과제들이 존재한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연구결과물을 요청하는 기관도 있다. 시기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정책 방향에 따라 연구의 주제는 달라진다. 연구 주제의 일관성, 역사성, 맥락적 흐름이 끊기고 나열되어 있다. 그래도 한국연구재단에서 나오는 다년 과제는 그나마 연속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다.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느리지만 분명하게 목적의식적으로 연구의 장을 넓힐 수 있게 한다.

통일은 영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사회, 주민과 주민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서로 다른 두 체제에서 성장한 주민 간 통합의 어려움은 충분히 언급되고 있다. 관련 사례들이 많이 읽히고 이슈화되고 공론화되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사회를, 현재 정착한 탈북민 사회를, 그들의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차원의 연구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 쉽게 결과물을 생성할 방법에만 의존하다 보니 매년 같은 질문만 쌓여간다. 지금에 와서 문항을 고치려 해도 과거에 해 왔던 자료들과의 연속성을 핑계로 그마저도 어렵다. 시대는 분명 달라지는 데 설문지 문항은 예전 그대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몇몇 학자 집단의 연구에 대한 열의는 의외로 높다.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연구자들끼리 꾸준히 모임을 하고 연구 주제를 정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피력한다. 그런가 하면 의기투합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고 논문집을 만들어 책으로 펴낸다. 척박한 연구 환경에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 서로를 응원한다.

북한학 학자, 그리고 신진학자로서 느끼는 한국의 북한, 통일연구는 현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급변하는 남북관계는 북한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과거의 안목으로 북한을 평가할 수 없다.

급변하는 남북관계, 새로운 북한학 연구의 시각 필요해

단골로 논의되던 자료의 부족이라든가 접근에 관한 이슈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은

> 우리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 자신을 검열해야 한다. 내가 하는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로
> 자리 매김 할지 한 번 더 생각 해 보아야 한다. 빠르게 잊히는 과거를
> 연구 자료로 엮을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주도적으로 세계에 그들의 뉴스를 공개한다. 과거 지원을 받던 대상에서 이제는 주변국에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요청한다. 북한을 드나드는 수많은 방문객에 의해 북한 관련 정보가 인터넷으로 보급된다. 과거 빈곤함의 상징이었던 북한으로부터의 이탈이 이주로 바뀌고 있다. 탈북민으로서 갖고 있던 정보는 아득한 예전 것이 되었다. 과거 북한의 1차 자료만을 붙들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 내려가던 것에서 이제는 입체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공간자료가 존재한다. 북한의 새 교과서가 전자책의 형태로 우리 앞에 와 있다. 과거의 묵직했던 사전이 태블릿 안에 들어있다. 위성으로 장마당 개수를 파악하고 변화된 지형을 확인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이행의 공식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경로 의존적 현상들이 하나둘 이탈하고 있다. 김정은 동영상 모음이 SNS로 공유되고 친숙하다고까지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 적국의 수령을 마주함에 있어서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학문적 증명 가능한, 평화 공존 기여할 수 있는 연구로 거듭나자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심어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교장들의 움직임도 보인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장을 서둘러 준비한다. 저마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 서로가 변화된 남북한 정치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앞날을 구상한다. 이런 환경에 북한학 연구, 통일학 연구는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새롭게 떠오르는 질문이다.

우리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자신을 검열해야 한다. 내가 하는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로 자리 매김 할지 한 번 더 생각 해 보아야 한다. 빠르게 잊히는 과거를 연구 자료로 엮을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현재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만큼 과거에 이를 언급했던 내용을 찾아 현재를 가늠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이와 같은 변화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변화를 대처하는 그들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빨리 읽어내야만 한다. 진정한 이웃으로 다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를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엄현숙은 탈북 전 북한의 지방 대학에서 8년간 김일성 혁명역사 담당 교수로 재직했다. 2016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통일교육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통일교육센터 전문강사로 활동했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1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이야기

북한학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

김태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민화협 1020통일공감 기자단

Zoom In!

"정말이야?"

2018년 2월 전 세계는 한반도를 주목했다. 고생 끝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한 것도 있었지만 북한에서 선수단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남한을 찾은 것이다. 그때만 해도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이렇게까지 요동칠 줄 몰랐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찾은 북한 김여정 특사의 남북정상회담 제의는 북미정상회담 합의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을 마쳤고, 일본과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불과 작년만 해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일 년에 아니 몇 년에 한 번 있을법한 정상회담이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두근두근"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이 계속되며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자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댔다. 그간 얼음장보다 더 차갑던 남북관계가 서서히 녹고 있고, 이제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희망고문일지 모르겠지만 남북교류가 활성화돼 개성공단 아니 나진선봉이나 신의주 경제특구에서 일을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그 상상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북한학을 공부한 내겐 시원한 청량음료 한 잔과 같다.

"답답하다"

지난 10년은 잇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한 보수정권의 사상검증이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이해와 결부되면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단 진단도 있었지만 적어도 내겐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다고 보였다. 북한학을 공부한 내겐 그런 상황이 미웠다. 진보정권 시기에 학과 선배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취업한 이야기는 이젠 전래동화가 돼 버렸다. 그런 취업은 바라지도 않는다. 당시 현장학습을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진행했단 이야기들은 '왜 하필 나한테만!'이란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그래도 이 학문을 포기하진 않았다. 북한학 주변 사람들이 이곳이 언젠가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들려줬기 때문이다.

"돌아서다"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니 오래 갈 수 없었다. 남북교류는 축소에서 나아가 단절이 됐고 남북관계는 적대에서 파국으로 향했다. 대북관련 단체나 기관에선 해당 부서와 전문 인력을 감축하기에 이르렀다. 통일을 준비하겠다던,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친 정부는 행동에선 뜨뜻미지근했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대국민 통일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정책은 용두사미처럼 보였다. 그 사이 북한학과는 대학 학부과정으론 전국 두 곳만 살아남았지만, 학내 규모나 위상이 축소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어느덧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취업할 때가 오자 자연스레 직업의 장래성, 연봉, 안정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 결론은 '더는 힘들지 않을까'였다.

"이제라도"

네 실력이 부족한 걸 두고 왜 남 탓만 하냐는 질책을 피하고 싶진 않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준비할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또 특정학문을 위해 정부가 무조건 투자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관련 학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지원은 필요하다. 현재를 사는 대다수는 통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적어도 특수학문인 북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간절한 바람이다. 대국민 통일교육과 홍보도 필요하지만 꾸준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시원할까"

불모지를 개간하기 위해선 도전정신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위험과 희생이 따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개척시대에도 '금광'이란 희망을 바라보고 서부로 달려갔다. 금광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아득하게나마 청량음료 한 병이라도 보이면 좋겠다. 2018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남북관계와 그 주변국이 항상 안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서라도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 중심엔 북한학을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함께 서 있길 희망해본다.

2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이야기

통일은 멀리 있지 않다

김희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민화협 1020통일공감 기자단

Zoom In!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커졌다.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었고, 북한에 대한 멸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있을 뿐이다." 현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를 보며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다. 북한은 2018년 신년사 이후로 외교의 방향을 180도 바꾸었고, 핵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사고와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태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작년까지 한반도 핵 위기설이 돌며 불안에 떨던 세계는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너도나도 앞장서고 있다.

연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 의지를 드러냈을 때는, 갑작스러운 전개에 이질감이 크게 들었다. 북한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순식간에 전환되었다. 남북 선수단은 남한과 북한이 아닌 '코리아'의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으로 입장했다.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관중들과 올림피언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아리랑 노래와 함께 서로 발을 맞추어 걷는 남북 선수단의 모습에 크게 감격했고 콧등이 시큰해졌다. 서로를 향해 창과 칼을 겨누던 두 나라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감동의 순간은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 단일팀에서 계속되었다.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남한과 북한은 하나가 되어 응원했고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관중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여정, 김영남 특사가 함께 경기를 관람했고, 너무나도 평화적인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 또한 경기 진행 양상과 관계없이 쉬지 않고 열정적인 응원을 계속하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남한과 북한이 진정 한민족임을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었다.

"한반도 평화의 물결에 동참하고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담론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통일을 이루면 남한과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시너지를 일으키며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경제적, 군사적인 이유보다 통일을 해야 하는 더욱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다.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 이것 이외에 또 어떤 대단한 이유가 필요한 것일까? 도대체 언제까지 끝없는 군사력 증강의 경쟁과 전쟁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러 번 느꼈던 가슴 속 깊은 울림이 일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한반도의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언어, 문화, 사고,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물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언어, 문화, 사고,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물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정상회담과 더불어 비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와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청년들의 교류활동,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간의 관광 사업, 예술 공연 교류, 개성공단 가동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가슴 깊이 묻혀 있던 민족애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평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

* 편집자 주 : 여행작가 민혁과 함께 미리 만나보는 통일여행기입니다. 북한의 자연, 음식, 역사, 교육, 당국 행사까지 시리즈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 제2편 – 평양냉면에서 백두산들쭉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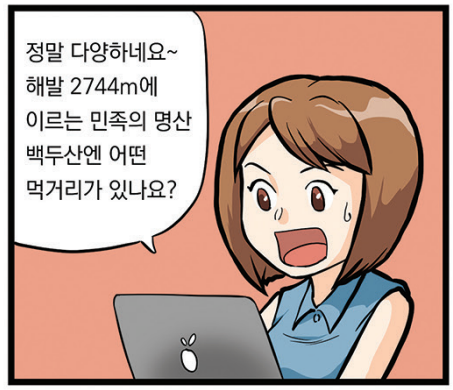
연출·그림 : 디모츄

대동강맥주는 폐업한 180년 전통의 영국 어셔양조회사 설비를 반입해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북한의 대표 맥주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맥주보다 맛나다고 평하면서 유명해졌죠.
지난 2016년 8월엔 북한이 대동강에서 외국인 등을 초청해 첫 맥주축제를 열기도 했답니다.

황해도에는 밥 위에 닭고기와 여러 가지 나물을 얹어서 만드는 해주 비빔밥이 있어요. 우리 전주비빔밥과는 달리 닭이나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고추장 양념은 없답니다~
침샘 자극~

개성지역엔 옛부터 손만두와 조랑떡국이 유명했죠. 닭으로 육수를 만들어 풍미 가득한 만둣국과 누에고치 모양의 조랑떡으로 만든 떡국은 그야말로 '개성만점' 이랍니다~ ^^

추운 북부지역인 함경도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가자미로 만든 식해가 감칠맛을 자랑하는데요. 흰쌀밥이 아닌 조밥을 쓰는 게 함경도식 가자미식해의 특징입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해발 2744m에 이르는 민족의 명산 백두산엔 어떤 먹거리가 있나요?

백두산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들쭉나무의 열매로 만든 들쭉술이 최고예요! 과일즙이나 잼으로도 즐길 수 있어요.
백두산
들쭉술

정말 곳곳에 입맛을 유혹하는 전통 음식들이! 하루빨리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게 되어 맛집기행을 하고 싶어요.
꼴깍
꼴깍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화해와 협력의 마음으로 교류하며 평화를 일궈가야죠. 그런데 통일이 되어 남북한의 맛난 음식을 다 즐기다가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너무 김칫국 십중팔구 것 같아요. 인가요?
하하♡

평화! 새로운 시작 입니다.

북한의 '대중문화' 어디까지 왔나?

파격적 무용과 의상 선보인 북한 공연단,
남북관계 개선 흐름 따라 사실상 남한 가요 해금 조치도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삼지연관현악단의 〈달려가자 미래로〉

2018년 2월 8일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기원 축하공연'이 있었다. 공연은 널리 알려진 클래식 연주와 남한의 대중가요, 북한 가요로 구성되어 있다.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에서 주목받은 것은 남한 가요였다. 김옥주와 송영이 부른 〈J에게〉를 비롯하여 귀에 익숙한 남한의 대중가요 십여 곡을 불렀다. 북한 예술단이 공식 무대에서 남한 가요를 이렇게 불렀던 경우는 없었다.

'북한에서도 이런 복장을…' <달려가자 미래로>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에서 남한 가요 이외로 주목받았던 장면이 있다. 북한 가요 〈달려가자 미래로〉였다. 〈달려가자 미래로〉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노래 자체보다도 무대 의상과 율동이었다. 검은색의 타이트한 짧은 팬츠에다 민소매의 빨간색 상의를 입고 활기찬 율동을 선보였다. 분명 북한에서 볼 수 있었던 공연 무대와는 구분되는 퍼포먼스였다. 우리의 걸 그룹을 연상시킬만한 공연이었다. 왜 그랬을까? 남한의 걸그룹을 의식한 공연이었을까? 남한에서 공연하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특별한 연출을 한 것은 아닐까? 해석이 분분하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공연 문화를 살펴보면 그렇게 특별한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대중공연은 상당히 달라졌다.

삼지연관현악단이 부른 〈달려가자 미래로〉는 북한에서는 모란봉악단의 노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공연에서는 모란봉악단의 노래보다도 북한식 칼군무를 선보이는 무용곡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달려가자 미래로〉가 어떻게 활용되는 지 보여주는 공연으로 2017년 7월 9일 열린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있다. 이 공연에서는 타이트한 흰색 바지에 흰색 상의를 입은 왕재산예술단의 여성무용수 6명이 출연하여 〈달려가자

왕재산예술단의 〈달려가자 미래로〉

왕재산예술단의 〈륜춤〉

미래로〉 노래에 맞추어 시원하고 활기찬 율동을 선보였다. 북한 예술단의 최근 공연을 살펴보면 공연에서 '예상 밖'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공연 구성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령 송가나 혁명가요, 당정책가요들이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가요를 전면에 배치하면서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대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공연은 무대 장식, 연주 방식, 연출 방식에서 이전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무대 공연을 주도하는 예술단은 왕재산예술단이다. 왕재산예술단은 다른 예술단과의 협력무대인 종합공연은 물론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삼지연군의 공연을 비롯하여 량강도 순회공연, 청진공연,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공연, 김책시공연, 신의주공연, 평안남도순회공연, 황해제철련합기업소공연, 평양공연을 비롯하여 130여회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2017년에도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에서는 개막곡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중심으로 〈우리의 김정은 동지〉 같은 새로운 송가를 비롯하여 '혁명적 열의를 높여주는 노래'를 중심에 놓으면서도, 타프춤 〈청춘시절〉, 〈명랑한 취사병〉과 현대무용도 공연에 포함하였다.

공연무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왕재산예술단의 공연으로는 2017년 7월 4일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있다. 왕재산예술단은 공연에서 가요 〈승리의 축배〉를 배경음악으로 라프춤을 무대에 올렸다. 라프춤은 '탭댄스'의 북한식 표현이다. 군복을 입은 남성무용수 8명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원색을 입은 여성무용수 8명으로 구성된 16명의 단원들이 동작에 맞추어 탭댄스를 선보였다. 북한 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양의 탭댄스를 무대에 올린 것이다.

같은 공연에서 이어진 무대는 〈륜춤〉이었다. '륜'은 '훌라후프'의 북한식 표현이다. '륜춤'은 훌라후프를 이용한 춤이다. 〈륜춤〉에는 7명의 여성 무용단원이 출연하였는데, 검은색 상의는 짧은 탱크탑이었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무대를 오가면서, 기계체조 동작을 응용한 무용을 연출하였다. 지금까지 공연무대에 올랐던 복장으로는 가장 파격적인 무대의상이었고, 가장 아찔한 무용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봄 남한의 대중가요 무대가 북한에서 세

왕재산예술단의 라프춤 〈탭댄스〉

차례나 공연되었다. 두 차례의 공연은 2018년 4월 1일과 4월 3일 열린 남한 예술단의 방북 공연이었다. 2018년 4월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가 열렸다. 삼지연관현악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기원 축하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남한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추진되었고, 그 무대가 4월 1일과 4월 3일 두 차례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차례 공연은 언제 있었을까? 남한 예술단의 방북 공연에 앞서 진행된 삼지연관현악단의 평양 귀환공연이었다. 남한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과 서울에서의 두 차례 공연으로 기억된다. 특별히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에 이목이 쏠린 것은 공연 구성에서 남한 가요가 중심이었기 때문이었다. 클래식 25곡이 연주되었지만 짧은 메들리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가요의 중심은 남한 가요였다. 강릉에서의 첫 공연에서 청봉악단의 가수 김옥주가 부른 〈J에게〉를 시작으로 10곡을 불렀다. 북한 공연단이 공식 무대에서 남한 노래를 이렇게 공식 무대에서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서울 공연에서도 레퍼토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은의 요청곡 <뒤늦은 후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강릉과 서울에서의 공연보다 놀라운 것은 귀환공연이었다. 2월 16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귀환공연이 열렸다. 세계 명곡의 메들리를 연주한 '친근한 선율'에 이어 '여러 곡의 남조선 노래들'을 무대에 올렸다. 최룡해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예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이 관람한 자리였다. 노동당 핵심 간부들이 관람한 무대였으니 적어도 무대에 올려졌던 노래 정도는 공식적으로 불러도 별일 없게 되었다. 남한 가요에 대한 일종의 해금 조치였다.

북한에서 남한 가요는 꽤 많이 알려져 있다. 남한 예술단의 방북 공연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 공연에서 눈길을 끌었던 노래는 최진희가 부른 〈뒤늦은 후회〉였다. 〈뒤늦은 후회〉는 최진희의 노래도 아니고, 대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곡이라 하기도 어려웠다. 북한의 경우에는 노래와 가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좋은 노래는 누가 불러도 된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가수마다 자신의 노래가 있다. 최진희의 경우에는 〈사랑의 미로〉 외에도 자신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

〈뒤늦은 후회〉는 남매 듀오 '현이와 덕이'의 노래다.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다. 최진희가 〈뒤늦은 후회〉를 부른 것은 북측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진희는 자신의 히트곡 〈사랑의 미로〉에 이어 자기 노래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준비하는 측에서 〈뒤늦은 후회〉를 요청했다고 한다. 특별 요청으로 "그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왜 내 노래도 아닌 걸 불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노래를 준비했다고 한다.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왜 그 노래를 요청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알려진 대로 〈뒤늦은 후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고 한다.

4월 1일 남한 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를 본 김정은 위원장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은 애절한 선율로 북한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얻은 노래이다. 김정은의 관심 역시 비슷한 정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4

돼지와 아낙네

조천현 PD

빨래하는 아낙네의 얼굴에 미소가 환합니다.

부족해도 웃으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족해도 웃음을 잃은 삶이 있습니다.

강과 함께하는 돼지와 아낙네,
동물도 사람도 나뉘지 않고
삶도 마음도 자연을 닮아가는 듯
집짐승도 사람도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강을 닮은 사람처럼
하나로 살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01

南 남측 우표

01. 남북정상회담(1차) 개최 기념우표 | 2000.6.13.
02. 남북정상회담(1차) 기념날짜도장
03. 남북정상회담(2차) 기념우표 | 2007.10.2.
04. 남북정상회담(2차) 기념날짜도장

02

03

04

01

02

03

北 북측 우표

01. 북남최고위급회담(1차) 기념우표 | 2000.10.23.
02,03. 6.15북남공동선언발표 5주년 기념우표 2종 | 2005.6.15.
04. 북남수뇌상봉 기념우표 | 2007.11.10.

04

우표로 보는 남과 북
16

평화의 순간을 기억하다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이상현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상최초로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남측 지역을 방문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논의를 가진 뜻 깊은 자리였다.

남과 북은 과거 2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최초의 정상 간 만남을 이루어 냈다. 이를 기념해서 남과 북은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남측은 한반도 지도에 새싹이 트는 모습을 그린 상징적 의미의 우표를, 북측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담긴 우표를 발행하였다. 남북 정상은 이때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작성하였는데, 북측은 남북공동선언문 발표 5주년 기념으로 2005년 2종류의 소형시트를 발행하기도 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때도 남북은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북측은 1차 정상회담 기념우표와 마찬가지로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우표의 정식 명칭은 '북남수뇌상봉 기념'이다. 이는 북측의 1차 정상회담 기념우표와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 1차 때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 회담기념'으로 표현되었다. 남측은 한반도 상공을 날아오르는 하얀색 비둘기로 평화를 염원하는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서도 남과 북이 기념우표를 발행할 것이라 기대된다. 과연 몇 종류로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될 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앞으로 이번 남북 정상간 교류가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과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Network

민화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5+06

1 2018 여성통일 공감 Talk
"여성이 걸어온 평화와 통일의 길"

민화협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진민자)는 지난 5월 9일 수요일 광화문에 위치한 스페이스 라온에서 '2018 여성통일 공감 Talk'를 개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속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와 통일 분야의 여성의 역할이 매주 중요해졌다"며 여성들이 걸어온 평화와 통일의 길을 되돌아보며, 끊어진 역사를 끈끈하게 이어온 여성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여성과 평화'를 주제로 "지금까지의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여성이 억압받는 주체로 인식된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여성성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억압, 배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의식, 몸, 감정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전달했고 이에 대한 성찰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평화와 통일에서의 '여성적 시각, 여성의 접근'을 이야기하며 여성이 만들어낸 다양한 상상력의 가치 평가에 대한 재고를 강조했다. 이어 통합, 통일 논의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 중심적 시각을 변화시켜야 하고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담론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주의를 통한 '다름과 차이'의 포용, 국제정치학적 계산이 아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여성통일 공감 토크는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각자 걸어온 평화·통일의 길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숙임 조각보 이사장, 한미미 한국 YWCA연합회 실행위원, 조원영 평화활동가, 안선영 여대생 통일연구학회 회장 이 참여해 여성과 평화,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화협 여성위원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 토크쇼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계획이다.

2 2018 민화협 제1차 정책간담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로드맵”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마포 민화협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주제로 2018년 제1차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민화협 정책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환경을 진단하고 추진과제와 로드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기존에는 연락채널의 부재로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차원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확실한 연락채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남북교류와 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정 교수는 “최근의 남북관계·한반도 정세 변화 의미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방식의 사고를 통해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전과 다르게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변화를 주도 한다”며 현재 남북교류를 위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교류협력 방식이 양적, 질적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담대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 중 새로운 교류협력 방향성은 “평화체제를 만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공동 행사를 적극 진행하여 정부·민간의 동력을 확보하고 다방면의 교류를 명시한대로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정부 간 교류협력은 “경제 분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프라 건설을 시작으로 국제적 협력으로 확대·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명환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신상진 광운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이유진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 이주철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정은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범진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조문수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new Book

편집부

평양에 언제 가실래요 - 먼저 가본 북한땅

박기석 외 | 글누림 | 2018. 4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말 연구소 소장이자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의 연구교수로 있는 저자가 풀어놓은 북한의 이야기이자 14년 동안 45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모은 북의 여러 가지 이야기다. 특히 남한과의 차이에 집중하여 북한 언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자연, 건축, 실생활에서 쓰이는 물건에 최근 모습까지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이념을 떠나 떨어져 있던 우리 한민족을 만나볼 기회다. 저자는 "하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는 말이 있다며 해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평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직 남과 북이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 땅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동포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남북을 방문하며 느꼈던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아픔을 이야기하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남한에 살고 있는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북한 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선을 넘어 생각한다 -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박한식·강국진 | 부키 | 2018. 4

북한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국과 북한은 서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가? 대북 지원은 정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퍼주기 정책이었는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 통일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책은 분단 70년 동안 쌓인 무지와 편견이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북한과 남북관계의 실상을 전달한다. 북한 붕괴론,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국, 중국, 북한, 한국을 아우르는 국제 정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북한 관련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북미관계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살려 북한의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북한과 교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실용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하고 있다.

주체의 나라 북한 - 북한의 국가 권력과 주민들의 삶

강진웅 | 오월의봄 | 2018. 3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심층 분석했다. 1930년대 만주 항일무장투쟁부터 21세기 고난의 행군, 최근의 탈북 행렬까지 북한의 국가 권력은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에 그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우리에게 친숙한 '전체주의 국가'의 전일적 폭력의 이미지는 물론 만주 빨치산의 전통을 활용한 '유격대국가'의 모습, '어버이 수령'의 사회적 담론을 확장시킨 '가족국가'의 모습, 그리고 21세기 고난의 행군을 헤치며 장관의 파노라마를 보여준 '극장국가'의 모습 등이 그것이다. 이런 다양한 얼굴의 북한을 바깥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핵무기로 미제와 맞설 자세를 견지하고 있듯이, 내부 주체들의 시선에서 보는 북한은 또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런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모두 세뇌와 감시의 산물로 이해한다면 북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상으로만 머무르고 만다. 저자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그 사회의 내면을 탐색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시점에서 북한 사회와 국가 권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 진술을 들었고, 다른 출판물에 나오는 탈북자들의 수기와 진술도 참고했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 - 패권경쟁 시대에서의 자주와 동맹

스콧 스나이더 | 연경문화사 | 2018. 4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번영과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몇몇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책을 통해 저자는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의 외교정책을 추적하고 한국의 미래에 관한 일종의 예견과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1960년대 당시 박정희는 미국이 한국을 방기(放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저자는 박정희의 이 같은 결심과 1970년대 당시의 한미동맹 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후 한국의 외교정책 측면에서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 및 소련과 접촉할 목적의 북방정책, 북한을 국제사회와 통합시킬 목적의 김대중의 햇볕정책, 북한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증진을 추구한 박근혜의 신뢰정치, 한미관계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국제 금융·개발 및 기후변화 포럼 분야의 리더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안보 측면에서 아직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새로운 국가로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능력과 신뢰성을 구비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에 대한 열망과 동맹의 필요성 간에 적절히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aders

Vol.91 2018 03+04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1호의 정답은 '국제태권도연맹(ITF)'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하나 되는 태권도, 통일코리아의 시작입니다' 김일출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인터뷰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스포츠야말로 모든 장벽과 단절을 허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라는 걸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이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민족의 DNA가 살아 숨 쉬는 전통 무예로 남북이 하나 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태권도만큼 좋은 종목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유재범** 서울시 성북구

지구촌 화합의 축제 한마당인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고 아울러 남과 북의 뜨거운 형제애와 간절한 통일의 염원도 느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선보인 남과 북의 태권도 품세와 노래의 창법이 조금은 달랐지만 본래 그 뿌리가 하나였음을 확실히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길 희망합니다.

• **한봉윤** 충남 홍성군

'접견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나온 과외활동 나가는 아이들을 보니 우리랑 똑같네요. 교실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닌 들에서 산에서 배울 것도 많고, 부르면 대답할 것 같은 곳에서 소풍 온 듯 아이들을 도시락을 먹고 자연의 공기를 마시겠죠. 들녘에서 뛰어노는 북한의 아이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푸르게 키를 높인 나무처럼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길 바라봅니다.

• **박차영** 전북 남원시

남과 북의 우표에 가장 많이 등장한 화가가 김홍도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작은 우표 속 그림 감상을 제대호 한 적이 없었는데 기사를 읽으니 앞으로 자세히 보일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의 얼굴 표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그 속에 해학적 요소를 담아내어 시대의 기록물임과 동시에 그림 한 장 한 장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야기책이기도 하다는 감상도 잘 했습니다. 생각하네요, 이 우표들^^

• **이연성** 경북 포항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사실 TV로 유심히 지켜보고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공연이었기에 더욱 반가웠답니다.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무대의상이나 화장, 발성법 등이 매우 시대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잠시 느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인 '평화통일'이라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공연이었음을 말이죠. 통일의 길목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최정욱** 서울시 서대문구

언제, 어디서든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화협의 생생한 소식과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www.KCRC.or.kr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족화해 E-Book | 민화협 블로그 | 민화협 페이스북 |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남북한 어린이 동요 시리즈 |

형제별

작사 방정환 **작곡** 정순철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흘리네

형제별은 『어린이』지에 발표된 곡으로 1922년이나 1923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날 저무는 하늘'은 일제 치하의 조국을 상징하고
삼형제 별이 둘만 남은 상황은 뿔뿔이 흩어진 동족을 형상화한 것으로
참담한 우리 한반도 상황에 눈물짓게 만드는 노랫말이 특징이다.
때문에 당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